

“블루 이코노미 세부사업 예산 반영 나설 것”

김영록 전남지사 간담회...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협력 예정
한전공대·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전남도가 민선 7기 새로운 전남 비전으로 삼은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와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해 정부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국가계획 및 2020년 국고 예산에 반영해 정부 차원의 권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 전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블루 이코노미의 5대 프로젝트인 블루 에너지(Energy), 블루 투어(Tour), 블루 바이오(Bio), 블루 트랜스포트(Transport), 블루 시티(City) 등 외에도 주요 프로젝트를 더 발굴해 구체화하는 등 이를 새천년 전남 미래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전남도청에

서 열린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서둘러 세부사업을 선정해 블루 이코노미를 본 궤도에 올리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계획이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블루이코노미 관련 세부사업은 ▲한전공대 설립 지원, 랜드마크 연구시설(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구축, 8GW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 및 크루즈 관광 기반 조성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국가 면역치료 혁신 플랫폼 구축·국립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국가 유·무인기 드론 인증 통합·관제 인프라, 드론 규제자유특구 지정, 미래자율주행차 실

증 테스트베트 구축 ▲전남형 스마트 블루 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이다. 한전공대의 경우 지난 10일 범정부 지원 위원회에서 법적 근거, 정부 지원 규모 등을 담은 대학 설립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문 대통령이 “2022년 개교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큰 어려움 없이 추진될 것으로 김 지사는 전망했다. 신안 바다에 들어설 예정인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전남형 일자리’ 대표 모델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45조~50조원의 막대한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민간투자사·한전·정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상시 일자리만 4000개, 간접 일자리를 포함하면 11만7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봤

다. 김 지사는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만큼 앞으로 각 소관부처를 상대로 세부사업을 결정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밖에도 문 대통령께서 에너지밸리 조성을 통한 차세대 에너지산업 거점 육성, 우주항공산업, 미래자동차산업, 바이오메디컬산업,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사업, 연륙·연도교 건설, 호남고속철의 조속한 완공, 경전선 전철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전남 관련 산업, 지역현안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지원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블루 이코노미 세부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과 2020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회용 비닐봉투 사용하지 맙시다”

광주시 골목형 슈퍼 45곳
공유장바구니 시범 사업

광주시는 지역 소형슈퍼마켓을 대상으로 공유장바구니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정부의 자원활용법(약칭) 개정·시행으로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대상인 소형 슈퍼마켓(나들가게 45곳)을 대상으로 공유장바구니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 소형슈퍼마켓에는 공유장바구니 보관함을 제작, 배부했다. 또한 공유장바구니로 활용하기 위해 광주시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안 쓰는 장바구니 모으기 운동’을 추진해 1000개를 모아 공유장바구니 시범운영 마켓에 보냈다. 광주시는 공유장바구니 보관함 제작과 장바구니 배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장바구니 회수율, 비닐봉투 감축 실적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보관소 위치 안내와 이용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여수산단 배출업체 현장조사 주민 추천업체 참여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여수산단 대기 측정지 기록 위반 배출업체 민·관 합동조사에 주민 등이 추천한 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물론 10인 이상 주민이 배출업체의 환경시설 등 자료 공개를 요청할 경우 배출시설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볼 수 있게 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여수산단 환경관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5차 회의를 지난 12일 여수시청에서 열었다. 회의에는 주민 대표, 사회단체, 전문가,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전남도, 여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19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기관별 대책 및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거버넌스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거버넌스에서 논의 중인 의제는 ▲대

기 측정지 기록 위반 배출업체 민·관 합동조사 ▲여수국가산단 주변 환경실태조사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방안 ▲여수국가산단 주변 주민 건장영양조사 및 유해성 평가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 등 4가지다. 이날 회의에서 대기 자가 측정지 기록 위반 배출업체 민·관 합동조사의 경우 주민대표와 사회단체가 추천한 신뢰성 있는 민간 측정대행업체 2개 기관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7월 중 기업체와 ‘환경오염시설의 자발적 공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 사업장은 여수산단 내 모든 사업장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미래리더·예술·체육 100인 스타 육성’ 추진

초등 6~고 3 대상 인재 발굴

전남도가 다양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 전남을 대표하는 스타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 전남 스타 100인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스타 100인 육성사업’은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의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선도시책이다. 차세대 전남을 이끌 인재를 발굴해 키우는 역점시책이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다. 지원 분야는 미래리더, 예술, 체육이다. 미래리더 분야는 올림피아드 대회 입

상자 및 과학·발명·특허 관련 전국단위 대회 상위 입상자로 장학금 500만원이 반기별로 나눠 지급된다. 예체능 분야는 최근 2년 이내 전국단위 이상 대회(경기)에 입상한 학생으로 개인별 맞춤형 재능 개발비로 연간 최대 1000만원이 분기별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나 전남인재육성재단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미래리더 분야는 전라남도(061-286-3442), 예술 분야는 한국예총전남연합회(061-282-7506), 체육 분야는 전라남도체육회(061-288-1310)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맛있는 썸, 남도의 썸’ 책자 발간 전남도, 썸·특산물 토속음식 소개

전남도는 8월 8일 썸의 날 기념으로 전남의 썸과 썸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활용한 토속음식을 소개하기 위해 ‘맛있는 썸, 남도의 썸’ 책자를 발간했다. ‘맛있는 썸, 남도의 썸’은 도시에서 찌든 상념을 말끔히 씻어주는 남도 썸의 매력과 썸 어머니들이 정성스런 마음으로 갖췄던 속살과 바다의 향기를 버무려 탄생시킨 음식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도 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음식 조리법을 함께 소개했다. 국토 최남단에 자리한 신안 가거도를 비롯해 총 35개의 썸과 40개의 썸 음식이 야기로 구성됐다. 강재윤 (사)섬연구소 소장이 썸에서 채록한 음식 조리법을 바탕으로 정현성·최경작가가 원고 작업을 진행했다. 정설 조선 이공대 교수가 아름다운 썸 풍경을 그림으로 옮겼다. 이상심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남도 썸 음식의 맛을 육지에서는 재현할 수 없다”며 “남도 썸의 아름다운 풍광, 남도 바다와 갖췄던 숨소리를 보고 들으며 먹을 때야 비로소 그 맛의 깊이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맛있는 썸, 남도의 썸’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요 기차역에 비치했다. 썸의 날 행사 기간 중 전남홍보관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전남도 누리집의 about전남섬(http://islands.jeonnam.go.kr)에서 열람하거나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인구문제 극복 행복 퍼포먼스 15일 도청에서 열린 제8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행사에 참석한 주민과 어린이들이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행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14년 지지부진 광주문학관 내년말 착공 ‘탄력’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설계용역 등 계획대로 추진

광주시는 광주문학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최근 통과해 내년말 착공 가능해졌다고 15일 밝혔다. 40억 이상의 문화시설 건립시에는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광주문학관 건립사업은 지난 4월

에도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올랐으나 ‘타 광역시권 문학관과 비교해 면적(규모)이 넓고 재원 조달 방안이 명쾌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행안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하면서 14년간 지지부진했던 광주문학관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시자료 및 유물조사를 이어가

고, 광주문학관 추진위원회 자문을 거친다. 광주문학관은 총사업비 171억원으로 북구 시화마을 일원(북구 각화대로 91)에 짓는다. 건축 연면적 273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다. 문학관 건립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상설·기획전시장, 관람객 및 신인작가를 위한 창작공간이 들어선다. 생활에서 즐기고 체험하는 시민문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게 된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창밖 풍경

전원주택전경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